

문학 번역의 다시쓰기에 대한 소고 — 장아이링 소설 번역의 다시쓰기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신 다 영
(이화여대)

1. 서론

1980년대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된 이래 번역학 연구는 사회 문화적 연구로 지평을 확대해왔고, 오늘날에 이르러 문화간 번역에서 앙드레 르페브르(André Lefevere)가 말한 ‘다시쓰기(rewriting)’가 일어난다는 관점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화간 번역에서 다시쓰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직관적인 논거는 문화의 차이로 인한 ‘번역 불가능성(untranslatability)’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출발어 문화와 도착어 문화의 차이로 인해 출발어 텍스트에는 도착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요소가 존재하고, 이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다시쓰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관점이다. 실제 중한 문학 번역의 다시쓰기 사례를 분석한 신다영(2016)에서도 이와 같은 번역 불가능성으로 인한 다시쓰기 사례를 다

수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 다시쓰기가 단순히 번역 불가능성에서 비롯된다면 다시쓰기의 양상은 비교적 단순해지고 연구 결과도 비교적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쓰기에 대한 기술번역학적 연구 또한 그 의의가 반감될 수 있다. 그러나 신다영(2016)을 비롯한 여러 연구(김혜림 2011, 정인영 2013, 박소영 2012 외)에서 다시쓰기는 번역 불가능성 외에도 매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르페브르는 다시쓰기를 문학 시스템의 전문가(professionals)와 문학 시스템 밖의 후원자(patronage)가 원작과 다른 이미지를 도착어 문화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ideology)와 시학(poetics)을 통해 투사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르페브르의 다시쓰기 이론에서 전문가 집단에 속하는 번역자는 단순히 역주, 부연 설명, 대체 등의 번역 전략을 통해 원 텍스트의 번역 불가능한 요소를 어떻게든 번역 텍스트에서 재현하는 역할을 넘어, 도착어 사회 문화의 이데올로기와 시학, 내지는 번역자 개인의 이데올로기와 시학을 번역 텍스트에 투사하는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드러낸다. 후원자에 속하는 출판사 또한 번역 텍스트의 선정, 번역, 편집 및 출판 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번역 불가능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맥락에서의 다시쓰기 사례를 통해 문화간 번역에서 일어나는 다시쓰기의 복잡한 양상을 단편적으로나마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선행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연구자들에 의해 기술된 다시쓰기의 사례를 살펴본 후, 연구자 본인이 중국 작가 장아이링(张爱玲)의 작품 5편을 대상으로 시도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다시쓰기의 주체로서의 번역자(내지는 출판사)가 번역 불가능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맥락에서 다시쓰기를 시도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다시쓰기를 유발한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는 출판사에 의한 다시쓰기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외에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취합한 다시쓰기 사례를 모두 번역자에 의한 다시쓰기 사례로 간주한다. 실제 국내 출판 번역 시장에서 출판사의 편집자에 의한 유편 등 다시쓰기가 이루어지지만 텍스트 분석에서는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이론적 배경

르페브르(1992: 14-15)는 문화 시스템의 일부로서 문학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문학 시스템을 통제하는 주체로 전문가와 후원자를 제시한다. 전문가는 문학 시스템의 내부적 통제 주체이며 평론가 교수 번역자 등이 이 범주에 속하고, 후원자는 문학 시스템의 외부적 통제 주체이며 종교 단체 정당 출판사 언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전문가와 후원자는 도착어 문화의 이데올로기와 시학에 의해 출발어 문화로부터 전파되는 원 텍스트와는 다른 이미지를 번역 텍스트에 투사하게 된다. 여기서 이데올로기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닌, 우리의 행위를 통제하는 관례, 관습, 믿음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Lefevre 1992: 16)이며 르페브르(2014: 217)는 이를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a certain concept of what the world should be like)”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시학은 “문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a certain concept of what literature should be like)”으로, 표현이나 문체의 층위를 넘어 특정 사회 문화가 선호하는 장르, 주제, 상징 심지어는 원형적 인물과 상황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Lefevre 1992: 26)

르페브르(1992: 87)는 출발어 문화와 도착어 문화의 서로 다른 담화 세계(universe of discourse)를 대하는 번역자의 태도가 원 텍스트의 지위(status of the original), 도착어 문화의 자아상(self-image of the culture that text is translated into), 도착어 문화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텍스트 유형 및 표현법(the type of texts deemed acceptable in that culture, the levels of diction deemed acceptable in it), 목표로 하는 독자층(the intended audience), 도착어 문화 독자가 익숙한 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 스크립트(the “cultural scripts” that audience is used to or willing to accept) 등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이 요인들 중, 원 텍스트의 지위는 출발어 문화에서의 원 텍스트의 지위와 도착어 문화에서의 원 텍스트의 지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르페브르(1992: 87)도 지적했듯이 전자와 후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출발어 문화와 도착어 문화에서의 원 텍스트의 지위, 도착어 문화의 자아상에서 비롯되는 출발어 문화와 도착어 문화의 상대적 관계 등은 번역 텍스트의 다시쓰기 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예컨대 자국화/이국화 전략 등 번역자의 번역

전략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르페브르(1992: 100)는 출발어와 도착어의 언어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이 번역자에게 있어 극복(overcome)의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번역 전략을 통해 번역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투사(project)하게 되는 대상이라고 설명하는 등 번역 불가능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는 있지만, 다양한 사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번역 불가능성에 의한 다시쓰기와 번역 불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맥락에서의 다시쓰기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르페브르(1992) 자신이 제시한 다시쓰기의 사례에서 번역 불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맥락에서의 다시쓰기 사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²⁾하고, 먼데이(Munday 2001: 130-31)와 같은 학자들이 그의 이론을 소개할 때 인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또한 이러한 사례들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다시쓰기에 대한 논의에서 다시쓰기의 이론적 가치와 번역자의 능동적 역할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번역 불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맥락에서의 다시쓰기 사례라 할 수 있다.

번역 문제의 유형을 ① 피동적으로 발견하는 문제, ② 능동적으로 발견하는 문제, ③ 창조적으로 발견하는 문제로 유형화한 청스와 우칭(成思, 吳靑 2016: 53)의 구분법³⁾을 빌어 설명해보자면, 번역 불가능한 요소가 존재하는 맥락에서의 다시쓰기는 번역 불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번역이 진전될 수 없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 즉 번역자가 피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인 데 반해, 번역 불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맥락에서의 다시쓰기는 번역 과정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않는, 번역자가 능동적, 창조적으로 역할을 발휘하는 과정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번역 불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맥락에서의 다시쓰기에 대한 연구는 역자 주체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다시쓰기 이론이 번역자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2) Lefevere(1992: 66)가 제시한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안네의 일기(dagboeken van Anne Frank)』 사례, 즉 독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유대인에 대한 독일인의 만행을 언급한 부분이 다시쓰기된 사례 역시 번역 불가능성에 의한 다시쓰기라기보다는 독일인 독자의 수용을 감안한 다시쓰기 사례라 할 수 있다.

3) 청스와 우칭(2016: 53)은 이와 같은 유형화를 시도함에 있어 겐젤스(Getzels, 1975)의 문제 발견 방식 분류를 참고했음을 밝히고 있다.

4) Ren(2013), 焦鹏帅(2014) 등 참조.

3. 선행 사례 연구

김혜림(2011)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출판된 출판번역물 가운데 2쇄 이상 판매에 들어가고 YES24 도서리뷰 평점 4 이상을 받은 14개 출판번역물을 대상으로 다시쓰기의 형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분권, 부분 생략 및 순서 조정, 재편집 등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그 중 번역자에 의해 비교적 큰 폭의 다시쓰기가 이루어진 사례로 중국의 문화사학자 위치우위(余秋雨)의 에세이를 원 텍스트로 한 3개의 출판번역물이 제시되었으며 김혜림(2011)은 이를 ‘부분 생략과 순서 조정’으로 유형화했다. 원 텍스트의 주된 흐름에서 벗어난 부수적 내용이 담긴 원 텍스트의 부록이 생략된 사례, 장절을 재구성한 사례, 한국인 독자에게 생소한 내용이 담긴 원 텍스트의 저자 후기가 생략된 사례 등은 번역 불가능성과는 무관한, 번역자와 출판사의 적극적 개입이 드러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김혜림(2011)은 이를 독자의 수용성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한다.

그런데, 김혜림(2011: 70)이 결론 부분에서 밝혔듯이, 이와 같은 과감한 생략과 순서 조정은 “특정 번역자에 한해 발견되는 특징”으로 모든 출판번역물에서 이와 같은 과감한 개입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번역자 내지는 출판사의 적극적인 개입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김혜림(2011: 70)이 지적한 “원저자의 사전 동의”라는 법적인 문제 외에도 르페브르(1992: 87)가 언급한 다시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즉 원 텍스트의 지위, 도착어 문화의 자아상, 도착어 문화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텍스트 유형 및 표현법, 목표로 하는 독자층, 도착어 문화 독자가 익숙한 또는 가까이 받아들이는 문화 스크립트 등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위치우위 에세이 번역의 경우, 원저자의 사전 동의 하에 도착어 문화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텍스트 유형, 문화 스크립트 등 요인이 과감한 다시쓰기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신다영(2016)에서도 총 28개 중국 문학 작품에 대한 다시쓰기 사례 분석 중 2개의 작품에서 이와 같은 과감한 생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마위안(马原)의 「깡디스 산맥의 유혹(冈底斯的诱惑)」의 마지막 절(16절)인 시가(詩歌)의 번역이 생략된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이수(亦舒)의 『시바오 이야기(喜宝)』가 전

체 분량 중 3분의 1 가량만 발췌 번역된 사례이다. 『시바오 이야기』의 발췌 번역에 대해서는 해당 번역 텍스트의 작품 해설 부분에서도 아래와 같이 번역 과정에서 다시쓰기가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중국 대륙에서 기획된 이수의 전집 중 《시바오 이야기》(베이징: 신세계출판사, 2007)를 원전으로 삼았으며 전체 분량 중 3분의 1 가량을 발췌해 번역했음을 밝힌다. 소설의 처음부터 시바오가 홍콩을 떠나기 전까지의 이야기와 3년 뒤 스코트랜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시바오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을 발췌했다. 작가가 원작에서 장절의 구분 없이 한 호흡으로 이야기를 끌어 나갔기 때문에 소설의 일부분을 추려 내는 작업에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만지의 기획의도에 따라 작가가 전달하고자 한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한 점에 대해서는 독자의 이해를 구한다. (문희정 2011: 11-12)

위와 같은 기술을 통해 우리는 이 작품이 의도적으로 부분 번역되었으며 이와 같은 다시쓰기가 이루어진 데는 문학 시스템 밖의 후원자, 구체적으로는 출판사의 의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바오 이야기』의 원 텍스트는 1970년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홍콩에서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에 시달리다 끝내 타락해버린 한 청년이 결국에는 비판적 일면을 극복하고 자신과 주변인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진취적 삶의 태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반면, 번역 텍스트는 타락한 청년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망연해 하는 모습까지만을 작품에 담았다. 결과적으로 『시바오 이야기』의 부분 번역은 내용적 측면에서도 원작과 작품 자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인영(2013: 667-68)은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영어 번역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비교 분석하여 영어 번역본은 “하루키라는 작가와 그 작품의 소개 자체가 철저하게 번역자(및 편집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번역 전 작품의 포지셔닝과 장르성 등을 설정 후 이에 입각해 다시쓰기”된 반면, 한국어 번역본은 “원문예의 충실함을 포함하여 일본문화가 번역본에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 번역자가 전혀 거부감이 없었음”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사례 또한 한국어 번역본에 비해 영어 번역본에서 보다 과감

한 생략과 시제의 변형 등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이는 번역에 있어서의 자국화 전략임과 동시에 “하루키의 소설을 포스트 모던(post-modern) 계열의 작품으로 자리잡게끔”(653) 하려는 번역자와 편집자의 의도에 의한 다시쓰기로 분석된다. 작품에 포스트 모던한 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한 번역 전략으로서의 생략과 시제 변형은 번역 불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맥락에서의 다시쓰기라 할 수 있다.

위의 사례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르페브르(1992: 87)가 언급한 원 텍스트의 지위는 상대적인 것으로 출발어 문화에서의 원 텍스트의 지위와 도착어 문화에서의 원 텍스트의 지위가 일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동일한 원 텍스트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전달될 때 서로 다른 도착어 문화에서의 원 텍스트의 지위에 따라 다시쓰기의 양상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문화간 소통에 시차가 존재하고 원저자와 번역자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문학 번역에서는 원 저자 자신의 작품에 대한 생각이 작품의 번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김혜림(2011)과 정인영(2013)의 연구에서 공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혜림(2011: 70)은 번역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저자 위치우위의 사전 동의 하에 과감한 생략과 순서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으며, 정인영(2013: 658) 역시 번역서의 표지 안쪽에 “저자의 참여 하에 알프레드 번바움이 편역하였음 (Translated and adapted by Alfred Birbaum with the participation of author)”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저자의 참여 하에 이루어진 다시쓰기임을 설명하고 있다.

4. 연구 방법 및 결과

4.1. 연구 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중국 작가 장아이링의 소설 중 2000년대에 번역이 이루어진 작품 5편을 대상으로 원문과의 대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다시쓰기의 사례를 수집하

고 다시쓰기를 유발한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5편의 작품은 장편 1편(『반생연(半生緣)』), 중편 1편(『못잊어(多少恨)』)과 단편 3편이며 텍스트 분석에 사용된 원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는 아래와 같다.⁵⁾

| No. | 원제 | 번역본 작품명 | 역자 | 번역출판사(출판년도) |
|-----|--------|---------|-----|---------------|
| 1 | 『半生緣』 | 『반생연』 | 홍민경 | 알에이치코리아(2012) |
| 2 | 『多少恨』 | 『못잊어』 | 김은신 | 랜덤하우스(2008) |
| 3 | 『色, 戒』 | 『색, 계』 | 김은신 | 랜덤하우스(2008) |
| 4 | 『傾城之戀』 | 『경성지련』 | 김순진 | 문학과지성사(2005) |
| 5 | 『心經』 | 『심경』 | 김순진 | 문학과지성사(2005) |

장아이링의 작품은 남녀 간의 만남과 이별, 평범한 인물의 삶과 애환을 소재로 한 작품이 주를 이룬다. 여성 작가 특유의 세밀한 묘사, 독특한 문체, 풍부한 비유와 상징, 고독하고 황량한 작품의 분위기 등이 특징적이다.⁶⁾

중한 문학 번역 작품 중 장아이링의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장아이링의 작품이 출발어 문화권인 중국과 도착어 문화권인 한국에서 지니는 특수성 때문이다. 장아이링은 중국의 시사주간지 『아주주간(亞洲周刊)』이 1999년 선정한 ‘20세기 중국어 소설 100강’ 중 중단편 소설집 『전기(傳奇)』와 장편 『반생연』을 각각 4위와 24위의 반열에 올린 중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이다. 한국에서도 2005년에서 2014년까지의 10년간 5종 이상의 작품이 번역 출간된 중국 작가 6명 중 유일한 여성 작가⁷⁾이다. 그러나 장아이링 작품의 지위는 출발어 문화권인 중국에서도 지난 세기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어

5) 텍스트 분석에 사용된 원 텍스트는 번역 저본이 아닌 현재 연구자가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판본을 택했음을 밝힌다. 대부분의 번역 텍스트에 정확한 번역 저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유일하게 번역 저본 정보를 밝힌 『색, 계』의 경우 번역 저본이 1983년 출판물이라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텍스트 분석에 사용된 원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 관련 정보(출판년도, 출판사명 등)는 참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장아이링 작품 특징에 대한 분석은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의 바이두백과 참조 <https://baike.baidu.com/item/%E5%BC%A0%E7%88%B1%E7%8E%B2/44982?fr=aladdin>

7) 최은정(2015: 108) 참조.

왔고 도착어 문화권인 한국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야 그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그의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등 루쉰(魯迅)과 같이 20세기부터 줄곧 높은 지위를 누려온 작가들의 경전화된 작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장아이링 작품의 번역에서 르페브르(1992:49-50)가 말한 ‘활발한 번역자(spirited translator)’⁸⁾에 의한 다시쓰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2. 연구 결과

텍스트 분석 결과, 번역 불가능성으로 인한 다시쓰기 사례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고 번역 불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맥락에서의 다시쓰기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로는 번역 불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맥락에서의 다시쓰기 사례를 유형별로 취합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① 도착어 문화의 원형적 인물로의 다시쓰기, ② 성 관련 표현의 모호화 또는 생략, ③ 디테일한 서술의 축약, ④ 난해한 요소에 대한 해석 추가, ⑤ 관용적 표현의 추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1. 도착어 문화의 원형적 인물로의 다시쓰기

여성과 여성의 심리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장아이링의 작품에는 다양한 여성의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본 연구의 텍스트 분석에서는 원저자 장아이링이 그려낸 여주인공의 이미지가 번역 텍스트에서 도착어 문화의 원형적 인물⁹⁾에 보다 부합하는 이미지로 다시쓰기되는 사례를 아래와 같

8) 르페브르(1992: 49-50)는 존 후크햄 프레르(John Hookhan Frere)의 구분법을 인용하여 번역자를 ‘충실한 번역자(faithful translator)’와 ‘활발한 번역자(spirited translator)’로 구분한다. 충실한 번역자는 번역에 있어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며 원 텍스트에 대해 경외심을 보이고 다시쓰기의 방식 중 역주를 선호하는 데 비해, 활발한 번역자는 원 텍스트에 대한 부담감을 덜 느끼며 종종 과감한 번역을 시도한다.

9) 여기서 말하는 ‘원형적 인물’이란 특정 사회문화에서 어떤 규정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가리킨다. 원형적 인물로의 다시쓰기는 원 텍스트의 인물 관련 묘사를 도착어 문화의 원형적 인물(ex. 미인)이 지닌 속성(ex. 계란형 얼굴)에 부합하는 묘사로

이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1) 『반생연』

[원 텍스트]

她正把一根线头送到嘴里去咬断它, 齿缝里咬着一根丝线, 却向世钧微微一笑。(张爱玲 2012a: 84)

[연구자 번역]¹⁰⁾

그녀가 마침 실을 입으로 가져가 끊었다. 치아 사이에 실밥을 문 채로 스 권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번역 텍스트]

바느질을 끝낸 만전은 이로 실을 끊은 후 스권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홍민경 2012: 126-27)

위의 사례에서 작품 속 여자 주인공 만전(曼桢)은 바느질을 하면서 남자 주인공이자 연인인 스권(世钧)과 대화를 나누다가 바느질을 끝내면서 이로 실을 끊으며 스권에게 미소를 짓는다. 원 텍스트에서는 “치아 사이에 실밥을 문 채(齿缝里咬着一根丝线)” 연인에게 미소 짓는 여주인공의 모습이 그려지지만, 번역자는 이 모습이 로맨스 소설 속 여주인공의 원형적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듯, 번역 텍스트에서 이 부분을 생략하고 “이로 실을 끊은 후” 미소를 짓는 모습으로 재현했다.

사례 2) 색, 계(色, 戒)

[원 텍스트]

稍嫌尖窄的额, 发脚也参差不齐, 不知道怎么倒给那秀丽的六角脸更添了几分秀气。脸上淡妆, 只有两片精工雕琢的薄嘴唇涂得亮汪汪的, 娇红欲滴, 云鬓蓬松往上扫, 后发齐肩, 光着手臂, 电蓝水渍纹缎齐膝旗袍, 小圆角衣领只半寸高, 像洋服一样。领口一只别针, 与碎钻镶蓝宝石的“纽扣”耳环成套。(张爱玲 2007b: 271)

[연구자 번역]

이마도 다소 좁은 편이고 헤어라인도 들쭉날쭉했지만, 어찌된 조화인지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10) 연구자 번역은 어떠한 다시쓰기가 이루어졌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원 텍스트를 직역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아름다운 육각 얼굴형에 수려함을 더했다. 얼굴에는 옅은 화장을 하고, 오밀조밀한 두 입술만 반짝이는 선홍색을 발라 금방이라도 뚝뚝 떨어질 듯 했다. 풍성한 머리칼은 위로 끌어올렸고 뒷머리는 어깨에 닿았다. 팔뚝을 드러내는 청람색 물자국 무늬의 무릎 길이 치파오는 둥근 옷깃이 반 치(寸)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 꼭 양장 같았다. 옷깃을 여미는 부분에는 브로치를 하나 달았는데 사파이어에 작은 다이아몬드를 두른 단추 모양 귀걸이와 한 세트였다.

[번역 텍스트]

무슨 조화인지는 몰라도 좁고 날렵하게 빠진 이마, 들쭉날쭉 멋대로 자라 있는 잔머리마저 아름다운 그녀의 계란형 얼굴에 여성스러운 매력을 더해 주고 있었다. 그녀는 얇게 화장을 했지만, 조각을 하듯 정성스레 립스틱을 바른 두 입술만은 선홍색이 금방이라도 뚝뚝 떨어질 듯 반짝였다. 술이 풍성한 머리카락을 위로 끌어올려 고정시킨 다음 뒷머리는 어깨에 닿을 만큼 가지런하게 빗질했다. 그녀는 민소매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남색 치파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치파오의 둥근 옷깃은 양복 칼라처럼 약간 위로 올라와 있었다. 옷깃을 여미는 부분에 단 브로치는 사파이어 주변에 작은 다이아몬드를 박아 만든 단추 모양의 귀걸이와 세트를 이루고 있었다. (김은신 2008b: 17-18)

문화마다 아름다운 여성을 묘사하는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례 2의 경우, 원 텍스트에서는 여자 주인공의 외모를 묘사하면서 “육각 얼굴형(六角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번역 텍스트에서는 이 표현이 도착어 문화에서 대표적인 미인상이라 할 수 있는 “계란형 얼굴”로 재현되었다. 물론 출발어 문화에서도 각진 얼굴이 전형적인 미인상은 아니지만 사례 2를 보면 원저자 장아링은 주인공의 외모가 “수려하다(秀麗)”고 표현하면서도 디테일한 묘사에 있어서는 매우 사실적이면서 전형적 미인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미지(다소 좁은 편인 이마, 들쭉날쭉한 헤어라인 등)를 그리고 있는 반면, 번역 텍스트는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도착어 문화의 전형적 미인상에 부합하는 이미지로 재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저자 장아링에 의해 사실적으로 묘사된 여자 주인공의 외모가 번역 텍스트에서 도착어 문화의 심미관에 보다 부합하는 이미지로 다시쓰기된 사례는 또 다른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¹¹⁾

사례 3) 못잊어]

[원 텍스트]

另有一个较小的悲剧人物，渺小得多的，在那广告底下徘徊着，是虞家茵，穿着黑大衣，乱纷纷的青丝发两边分披下来，脸色如同红灯映雪。她那种美看着仿佛就是年轻的缘故，然而实在是因为她那圆柔的脸上，眉目五官不知怎么的合在一起，正如一切年轻人的愿望，而一个心愿永远是年轻的，一个心愿也总有一点可怜。(张爱玲 2007a: 212)

[연구자 번역]

그에 비해 훨씬 가녀린 또 다른 비극적 인물이 광고판 밑을 서성이고 있었다. 위지아인이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형클어진 검은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늘어뜨리고 있었으며 얼굴색은 마치 흰 눈 위로 붉은 조명을 비친 듯 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얼핏 보기에 그냥 젊음 때문인 듯 했지만, 기실 둥글고 부드러운 얼굴 위에 놓인 이목구비가 웬지 모를 조화를 이룬 것이 딱 젊은이들이 소망하는 모습이었다. 소망은 영원히 젊은 것이지만 또 늘 조금 가련한 것이기도 하다.

[번역 텍스트]

그리고 그에 비해 훨씬 작고 가녀린 또 다른 비극적 여인이 그 광고판 밑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위지아인(虞家茵)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 어깨까지 내려온 긴 머리카락, 흰 눈 위로 붉은 조명이 비친 듯한 발그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젊음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둥글고 부드러운 얼굴형에 오관(五官)이 뚜렷하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얼굴은 죽을 때까지 젊어 보이면서도 조금은 청순가련하게 보이는 모든 젊은이들의 소망이었다. (김은신 2008a: 76-77)

사례 3의 경우에도 원 텍스트의 여주인공은 머리카락이 다소 형클어져 있고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모여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여성이지만 번역 텍스트에서는 머리카락이 형클어져 있는 이미지가 생략되고 “오관이 뚜렷하게 자리잡은” 모습이 재현되었다.

11) 사례 2와 사례 3 모두 동일 번역자에 의한 번역 작품이기 때문에 번역자 개인의 이데올로기와 시학에 의한 다시쓰기로 볼 수도 있으나 신다영(2016)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다른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개별 번역자에 국한된 다시쓰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4.2.2. 성 관련 표현의 모호화 또는 생략

번역 불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맥락에서의 또 다른 다시쓰기 사례로 원 텍스트의 성(性)과 관련된 표현이 번역 텍스트에서 모호화되거나 생략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4) 경성지련(倾城之恋),

[원 텍스트]

她怎样消磨这以后的岁月? 找徐太太打牌去, 看戏? 然后渐渐的姘戏子, 抽鸦片, 往姨太太们的路上走? (张爱玲 2012b: 193)

[연구자 번역]

앞으로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쉬 부인을 찾아가 마작을 하거나 극을 봐? 그 다음에는 점차 연극쟁이와 놀아나고 아편이나 피워대는 첩의 길로 들어서?

[번역 텍스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쉬 부인을 찾아가 마작을 하거나 극을 봐? 그 다음에는 점점 극에 빠져들고 아편을 피우는 첩들의 길로 들어서? (김순진 2005a, 339)

사례 4에서 이혼녀인 여주인공 바이류쑤(白流苏)는 남자 주인공 관류위엔(范柳原)의 정부(情婦)로 전락하면서 앞으로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고민한다. 그 시대의 여느 귀부인들처럼 마작이나 연극 등 취미생활을 즐기다가 “연극쟁이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姘戏子)” 아편을 피우는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장면을 상상하는 부분에서 번역 텍스트는 이를 “극에 빠져들고”로 재현하여 성과 관련된 이미지를 삭제했다.

4.2.3. 디테일한 서술의 축약

장아이링의 작품은 여성 작가 특유의 디테일한 묘사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아래 사례와 같이 디테일한 서술이 번역 텍스트에서 축약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5) 『반생연』

[원 텍스트]

这时候灯下相对, 晚风吹着米黄色厚呢窗帘, 像个女人的裙子在风中鼓荡着, 亭亭地, 姗姗地, 像要进来又没进来。窗外的夜色漆黑。那幅长裙老在半空中徘徊着, 仿佛随时就要走了, 而过门不入, 两人看着都有所失, 有此生虚度之感。(张爱玲 2012a: 344)

[연구자 번역]

불빛 아래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이 순간, 밤바람에 미색의 두꺼운 모직 커튼이 휘날렸다.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여인의 치마처럼 우아하게, 느긋하게, 들어올 듯 말 듯 한 모습이었다. 창밖은 칠흑 같이 어두웠다. 그 긴 치맛자락은 마치 그저 스쳐 지나갈 뿐 들어올 생각이 없는 듯, 금방이라도 떠날 듯 줄곧 허공 속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두 사람은 생을 헛되이 보낸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번역 텍스트]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 미색 커튼이 마치 여인의 치맛자락처럼 부드럽게 휘날렸다. 창밖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두 사람은 헛되이 보내버린 시간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며 서로를 마주보았다. (홍민경 2012, 494)

위의 사례는 과거 사랑했던 남녀가 재회하여 헛되이 보내버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장아이링은 미색 커튼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우아하고 느긋하게 [창 안쪽으로] 들어올 듯 말 듯(亭亭地、姗姗地、像要进来又没进来)”, “그저 스쳐 지나갈 뿐 들어올 생각이 없는 듯 마치 금방이라도 떠나버릴 듯 허공에서 배회하고 있다(老在半空中徘徊着, 仿佛随时就要走了, 而过门不入)”고 묘사하며 두 남녀의 서로 다가갈 듯 말 듯한 미묘한 관계를 형상화하고 있는데 번역 텍스트에서는 이와 같은 형상화된 디테일한 서술이 생략되었다.

4.2.4. 난해한 요소에 대한 해석 추가

난해한 요소에 대한 해석 추가는 도착어 문화의 독자들에게 난해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재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도착어 문학 번역 시스템의 시학에 의한 다시쓰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난해하다는 것은 출발어 문화와 관련된 난해함과는 무관한, 즉 번역 불가능한 요소에 직면했을 때의

역자 해석과는 다른 문제를 가리킨다. 예컨대, 아래 사례에서 장아이링은 매우 독특한 직유를 활용하여 등장인물 두 사람 간의 대화 분위기를 묘사하였는데, 번역자는 이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사례 6) 못잊어,

[원 텍스트]

吃着茶, 宗豫与家茵说的一些话都是孩子的话。两人其实什么话都不想说, 心里静静的。讲的那些话如同折给孩子玩的纸船, 浮在清而深的沉默的水上。(张爱玲 2007a: 221)

[연구자 번역]

차를 마시며 종위와 지아린이 나눈 이야기는 모두 아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실은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마음 속이 적막하기만 했다. 대화는 아이들에게 놀잇감으로 접어준 종이배 같이 맑고 깊으면서도 고요한 물 위에 떠 있었다.

[번역 텍스트]

차를 마시는 동안 종위와 지아인은 내내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차분한 마음으로 별달리 말을 하고 싶은 상태는 아니었다. 그들의 대화는 모두 아이들이 접은 종이배가 투명하고 잔잔한 물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걸돌고 있었다. (김은신 2008a: 102)

위의 사례에서 장아이링은 별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거나 받거나 하며 남녀 주인공이 애써 유지해나가고 있는 대화 분위기를 ‘물 위에 떠 있는 종이배’라는 직유로 표현하고 있다. 번역자는 여기에 “걸돌고 있었다”는 표현을 추가하여 저자가 직유를 빌어 표현하고자 한 바를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4.2.5. 관용적 표현의 추가

원 텍스트의 관용적 표현은 번역 불가능성으로 인해 번역 텍스트에서 종종 다시쓰기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관용적 표현과 관련된 다시쓰기 사례 중에는 원 텍스트에는 관용적 표현이 없는데 번역 텍스트에서 관용적 표현이 추가되는 사례도 있다. 후자는 번역 불가능성과 무관한 다시쓰기 사례로 번역 텍스트의

문학적 효과를 위한 다시쓰기라 볼 수 있다.

사례 7) 못잊어」

[원 텍스트]

一个新雇的老妈子来回说有客来了, 递上名片。宗豫下楼去会客。小蛮躺在床上玩弄着他丢下的一副皮手套, 给自己戴上试试。大得像熊掌。

(张爱玲 2007a: 232-33)

[연구자 번역]

새로 고용된 가정부가 손님이 왔다고 알리며 명함을 건네왔다. 종위는 손님을 만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샤오만은 침대에 누워 그가 놓고 간 장갑 한 켤레를 가지고 놀았다. 제 손에 껴보니 곰 발바닥처럼 컸다.

[번역 텍스트]

새로 고용한 가정부가 명함을 건네며 손님이 찾아왔다고 알렸다. 종위가 아래층에 내려가 손님을 접대하는 사이 침대에 누운 샤오루안이 그가 놓고 간 가죽 장갑을 껴보았다. 고사리 같은 샤오루안의 손에 끼워진 장갑이 마치 곰발바닥처럼 크게 보였다. (김은신 2008a: 135)

사례 7은 샤오만(小蛮)이라는 여자아이가 아빠가 제 방에 놓고 간 장갑을 손에 끼워보며 노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원 텍스트에는 “곰 발바닥처럼 컸다(大得像熊掌)”는 직유만 사용되었는데 번역 텍스트에서는 이와 더불어 도착어 문화에서 어린아이의 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 “고사리 같은 손”을 추가로 사용했다. 이는 “고사리 같은 손”과 “곰 발바닥”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번역 텍스트를 좀 더 생동감 있게 재현하고자 한 시도라 볼 수 있다.

4.2.6. 그 밖의 다시쓰기 사례

위의 다시쓰기 사례 외에도 유형화를 하기에는 비교적 개별적인 사례이나 특기할 만한 다시쓰기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색, 계」에 서만 확인된 다시쓰기 사례로 이 작품을 원저로 한 영화가 한국의 독자들에게 먼저 소개되면서 다시쓰기에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사례 8) 색, 계

[원 텍스트]

易太太是在自己家里, 没穿她那件一口钟, 也仍旧“坐如钟”, 发福了, 她跟佳芝是两年前在香港认识的。那时候夫妇俩跟着汪精卫从重庆出来, 在香港耽搁了些时。跟汪精卫的人, 曾仲鸣已经在河内被暗杀了, 所以在香港都深居简出。(张爱玲 2007b: 271)

[연구자 번역]

이(易) 부인은 자신의 집이므로 그런 종(鐘) 모양의 망토를 입지 않았으나 얹은 자태는 여전히 중처럼 묵직해보였다. 살이 좀 썩 모습이었다. 그녀와 지아즈는 2년 전 홍콩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당시 이씨 부부는 왕징웨이(汪精卫)를 따라 충칭에서 나와 홍콩에 머물고 있었다. 왕징웨이의 부하인 쟁중밍(曾仲鸣)이 허네이(河内)에서 암살을 당한 터라 그들은 홍콩에서 두문불출하며 지냈다.

[번역 텍스트]

이(易) 부인은 자신의 집이어서인지 다른 부인들이 입고 있는 검은색 망토를 입지 않고 늘상 입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살이 더 올라 있었다.

그녀와 맥(麥) 부인 지아즈는 2년 전 홍콩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그 때 이 부인 부부는 왕징웨이(汪精衛)를 따라 충칭에서 나와 홍콩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왕징웨이의 심복이었던 쟁중밍(曾仲鳴)이 허네이(河内)에서 암살 당했기 때문에 홍콩으로 거주지를 옮긴 그들은 집안에서 두문불출하며 밖에 나오지 않았다. (김은신 2008b: 19)

사례 8은 이(易) 부인이 홍콩으로 건너가 지아즈(佳芝)와 조우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단락의 일부이다. 원 텍스트는 여주인공을 ‘지아즈(佳芝)’로 지칭하고 있는 반면, 번역 텍스트는 ‘지아즈(佳芝)’ 앞에 ‘맥(麥) 부인’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원 텍스트에는 없는 ‘맥(麥) 부인’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더군다나 중국인 성(姓)을 표기할 때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하는 일반적 방식(i.e. ‘마이 부인’)을 따르지 않고 한국식 한자어로 음독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 이유를 아래의 ‘옮긴이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색, 계」는 책보다도 먼저 영화를 통해 많은 마니아를 형성하고 있는 터라 작품 번역이 좀 더 조심스러웠다. 우선 작품의 주인공인 맥(麥) 부인과 그의 남편으로 거론되는 맥 선생 역시 중국 발음으로는 ‘마이’라고 하는 게 옳겠으나 애초에 영화와 인터넷을 포함한 대중매체에 맥 부인으

로 소개되어 있어, 작품이해의 편리성에 초점을 맞춰 맥 부인이라 지칭했음을 밝혀둔다. (김은신 2008b: 452-53)

웁긴이가 말하듯, 「색, 계」는 책보다 영화로 먼저 한국에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영화감독 리안(李安), 여배우 탕웨이(汤唯), 그리고 센세이셔널한 스토리와 장면으로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에 힘입어 ‘장아이링’이라는 원저자가 한국 대중에게 알려지고 그의 작품이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례 8은, 한국 독자의 뇌리에 각인된 영화 속 ‘맥 부인’이라는 지칭 표현을 추가하여 독자로 하여금 영화 속 여주인공과 번역 작품 속의 인물을 연결 지을 수 있게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르페브르의 관점에서 볼 때, 원저를 바탕으로 한 영화 또한 ‘다시쓰기’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는 원 텍스트의 ‘다시쓰기’가 먼저 도착어 문화에 소개되어 대중의 뇌리에 각인된 후, 그 ‘다시쓰기’가 도착어 문화에서의 원 텍스트의 지위, 나아가 원 텍스트의 번역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형화하기에는 비교적 개별적인 또 하나의 사례로 아래와 같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원 텍스트 속의 구시대적인 요소를 번역 텍스트에서 제거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례 9) 심경(心经)

[원 텍스트]

在这一片喧嚣声中, 小寒却竖起了耳朵, 辨认公寓里电梯“工隆工隆”的响声。那电梯一直开上八层楼来。小寒道: “我爸爸回来了。”(张爱玲 2012c: 118)

[연구자 번역]

이 소란 속에서도 샤오한은 귀를 쫑긋 세우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가늠했다. 엘리베이터는 8층까지 쭉 올라왔다. 샤오한이 말했다. “우리 아빠가 돌아왔다.”

[번역 텍스트]

이 소란 속에서도 샤오한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땡땡’하는 소리에 귀를 쫑긋 기울였다. 그 엘리베이터는 곧장 8층까지 올라왔다.

“아빠가 왔다.”(김순진 2005b: 219)

사례 10) 심경」

[원 텍스트]

说着，两人一同走到穿堂里，绫卿从衣架上取下她的白绸外套，小寒陪着她去揷电梯的铃，不料揷了许久，不见上来。小寒笑道：“糟糕！开电梯的想必是睡着了！我送你从楼梯上走下去罢。”（张爱玲 2012c: 123）

[연구자 번역]

말을 하면서 두 사람은 함께 복도로 나왔다. 링칭이 옷걸이에서 자신의 흰색 실크 외투를 내렸다. 샤오한은 그녀와 함께 엘리베이터 벨을 누르러 갔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벨을 한참 눌러도 엘리베이터가 올라오지 않았다. 샤오한이 웃으며 말했다. “이걸 어찌! 엘리베이터 관리인이 깜빡 잠이 든 게 틀림없어. 계단으로 내려다 줄게.”

[번역 텍스트]

말을 하면서 두 사람은 함께 복도로 나왔다. 링칭은 옷걸이에서 그녀의 흰 실크 외투를 내렸다. 샤오한이 그녀를 배웅하며 엘리베이터 벨을 눌렀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올라오지 않았다. 샤오한이 웃으며 말했다.

“큰일났다! 엘리베이터가 끊긴 것 같아! 계단으로 배웅해줄게.” (김순진 2005b: 226)

사례 9는 얼핏 보기에 의성어의 다시쓰기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의성어의 다시쓰기라고 보기에는 원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의 의성어가 나타내는 소리가 너무 다르다. 원 텍스트의 의성어는 기계 마찰음을 표현하는 반면, 번역 텍스트의 의성어는 벨 소리를 표현한다. 그런데, 사례 10과 함께 검토해보면 번역자가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구식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묘사를 오늘날의 독자들이 익숙한 신식 엘리베이터의 이미지로 재현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벨을 한참 눌러도(揷了许久)”라는 표현은 버튼을 한번 누르고 기다리는 신식 엘리베이터의 작동 방식을 고려하여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고,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야 했던 구식 엘리베이터의 오퍼레이터가 “깜빡 잠이 든 게 틀림없다(想必是睡着了)”는 원 텍스트의 표현은 “엘리베이터가 끊긴 것 같아”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구식 엘리베이터가 출발어 문화에만 존재했던 사물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사례 역시 번역 불가능성에 의한 다시쓰기라기보다는 번역자가 능동적으로 번역 텍스트에서 구

시대적 요소를 제거한 사례라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번역 불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맥락에서 문학 번역의 다시쓰기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구체적 사례를 고찰해보고자 중국 작가 장아이링의 작품 5편과 그 번역본을 대상으로 대조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다시쓰기 사례를 취합,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착어 문화의 원형적 인물로의 다시쓰기, 성 관련 표현의 모호화 또는 생략, 디테일한 서술의 축약, 난해한 요소에 대한 해석 추가, 관용적 표현의 추가 등 몇 가지 다시쓰기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형적 인물로의 다시쓰기의 경우, 도착어 문화의 원형적 인물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원 텍스트 인물의 이미지가 다시쓰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 표현의 다시쓰기 또한 원 텍스트의 노골적인 성 관련 표현이 다시쓰기를 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테일한 서술의 축약은 주로 생략하더라도 작품의 주된 전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적인 묘사, 도착어 문학 시스템에서는 다소 장황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서술이 다시쓰기를 유발하고, 난해한 요소에 대한 해석의 추가는 도착어 문화의 독자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표현이 다시쓰기를 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용적 표현 추가의 경우, 원 텍스트의 특정 요소가 다시쓰기를 유발한다기보다는 원 텍스트가 투사하고자 하는 상황을 보다 생동감 있게 번역 텍스트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쓰기가 유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텍스트 분석에서 제시한 다시쓰기의 다섯 가지 유형 중, 디테일한 서술의 축약과 난해한 요소에 대한 해석 추가는 얼핏 보기에 모순된 다시쓰기 행태로 생각될 수 있다. 즉, 간결한 서술을 선호하는 도착어 문학 번역 시스템의 시학으로 인해 디테일한 서술이 축약된 것이라면 이와는 반대로 번역자가 원 텍스트에 자신의 해석을 추가하는 다시쓰기는 전자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명시화는 언어를 막론한 번역의 일반적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독자의 읽기에 군더더기가 된다고 판단한 내용을 축약하는 다시쓰기와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내용을 추가하는 다시쓰기는 궁극적으로 번역 텍스트의 읽기를 위한 독자 주체성의 발휘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모순이 아닌 동일한 목적을 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어떤 번역자가 번역을 하든 반드시 다시쓰기가 이루어지는 번역 불가능한 요소의 다시쓰기에 비해, 번역 불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맥락에서의 다시쓰기는 독자 주체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 연구의 텍스트 분석에서도 유형화하기에는 비교적 개별적인 사례가 확인되었듯 전자에 비해 더욱 복잡하면서도 자의적인 양상을 보여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향후 더 많은 텍스트를 대상으로 번역 불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맥락에서의 다시쓰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문학 번역의 수용 양상과 다시쓰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순진 옮김 (2005a) 『경성지련』, 『경성지련』, 서울: 문학과지성사.
 --- (2005b) 『심경』, 『첫번째 향로』, 서울: 문학과지성사.
 김은신 옮김 (2008a) 『못잊어』, 『색, 계』,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张爱玲 (1983) ‘多少恨’, 惘然记 台北: 皇冠出版社.)
 --- (2008b) 『색, 계』, 『색, 계』,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张爱玲 (1983) ‘色, 戒’, 惘然记, 台北: 皇冠出版社.)
 김혜림 (2011) 「중환 출판번역에서 나타난 다시쓰기 형태」, 『번역학연구』 12(2): 53-73.
 문희정 옮김 (2011) 『시바오 이야기』, 서울: 지식올만드는지식. (亦舒 (2007) 喜宝, 北京: 新世界出版社.)
 박소영 (2012) 「희곡 번역과 다시쓰기: 『거미여인의 키스』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4): 55-79.
 신다영 (2016) 『중환 문학 번역의 다시쓰기에 대한 연구: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인영 (2013) 「村上春樹 소설의 영어 번역본 연구 - 한국어 번역본과의 비교

- 를 통한 ‘다시쓰기’의 관점에서], 『일본언어문화』 25: 649-670.
- 최은정 (2015) 「중국현대소설의 국내 번역 현황 및 독자 수용 양상 - 최근 10년간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8: 103-125.
- 홍민경 옮김 (2012) 『반생연』,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 Getzels, Jacob (1975) ‘Problem-finding and the Inventiveness of Solutions’,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9(1): 12-18.
- Lefevere, André (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2014) ‘Why Waste Our Time on Rewrites?: The Trouble with Interpretation and the Role of Rewriting in an Alternative Paradigm’, in Hermans, Theo (ed) *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 Oxon & New York: Routledge.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Ren, Shuping (2013) ‘Translation as Rewri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18): 55-59.
- 成思, 吴青 (2016) ‘从问题解决视角分析学习日志中的笔译能力发展动态’, *中国翻译* 2016(1): 51-57.
- 焦鹏帅 (2014) ‘变译理论与翻译改写论的异同’, *外语学刊* 1: 85-88.
- 张爱玲 (2007a) ‘多少恨’, *色, 戒*, 北京: 十月文艺出版社.
- (2007b) ‘色, 戒’, *色, 戒*, 北京: 十月文艺出版社.
- (2012a) *半生缘*, 北京: 十月文艺出版社.
- (2012b) ‘倾城之恋’, *倾城之恋*, 北京: 十月文艺出版社.
- (2012c) ‘心经’, *倾城之恋*, 北京: 十月文艺出版社.

[Abstract]

**A Study on Rewriting in Translation of Literature:
focused on the case study of
Korean Translation of Eileen Chang's Novels**

Shin, Da Young

(Ewha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Untranslatability of cultural elements and language is often thought to be the reason why translators 'rewrite' when they translate literature from different culture. It is indeed one of the main factor that cause rewriting in translation. However, if translators rewrite only when there's something untranslatable, the study on rewriting in the translation of literature will be somewhat predictable and obvious. What makes the descriptive study on rewriting more interesting and complex is the fact that translators rewrite, from time to time, even when there is no element untranslatable in the source text.

Translators are bound to rewrite, unexceptionally, when they encounter untranslatable elements, utilizing various strategies such as footnoting, replacing and omitting, etc. Whereas, when rewriting in the context with no untranslatability, translators reveal more subjectivity and creativity. Thus, descriptive studies on rewriting in the context with no untranslatable elements may be an effective way to confirm translators' subjectivity as well as the significance of Lefevere's rewriting theory.

This paper analyzes cases of rewriting in the context with no untranslatability, in the Korean translation of Eileen Chang's Chinese novels, to describe the situation in which such rewritings occur.

▶ Key Words: Lefevere, rewriting, translator subjectivity, untranslatability, Eileen Chang

신다영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printempo@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 교육, 번역 평가, 언어학

논문투고일: 2017년 7월 30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9일

게재확정일: 2017년 9월 10일